

이 력 서



이름	김연송	지원부문	웹디자인 (신입)
생년월일	1996년 09월 08일	병역	-
이메일	dusthd32@naver.com	핸드폰	010-7569-7590
주소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20-16 진원그린빌 202호 (이사 가능)		
포트폴리오 주소	https://yeonson.github.io/proj1/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력사항	전공	졸업구분
2017.03 ~ 2019.02	경남정보대학	경찰경호행정과	졸업
2012.03 ~ 2015.02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졸업

교육이수

기간	교육명	교육기관명
2021.02.25. ~ 2021.07.30 (5개월)	반응형 웹퍼블리싱&웹디자인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주요내용 : Adobe Photoshop/Illustrator/XD, HTML/CSS, Cafe24 (쇼핑몰)	

사회활동/아르바이트

기간	기관명	담당업무	퇴사사유
2014.06 ~ 2016.08	파크랜드	서무	학업
2020.08 ~ 2021.01	건강보험공단	병원 내 방역 및 발열체크	계약완료

활동사항(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공모전, 수상경력 외)

기간	구분	기관명(활동명)	활동 내용 및 담당 업무
2017.01.10~2017.01.13	봉사활동	늘봄어린이집	청소
2017.02.05.~2017.02.10	봉사활동	좋은부산요양병원	청소

자격증/어학점수

자격증(점수)	발행처	취득일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한상공회의소	2014.01
워드프로세서 1급	대한상공회의소	2014.03
ITQ 마스터	한국생산성본부	2014.04

어학능력/OA 소프트웨어

선택	주요내용		
영어	회화: 하	작문 : 하	독해 : 중
문서작성	Excel, PowerPoint, MS Word 가능		

보유기술 및 능력

[illegible]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및 성격	<p><예의바른 어린이></p> <p>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어릴 적부터 예의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친구처럼 다정하시다가도 제가 버릇없이 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습니다. 그 중 인사를 가장 강조하여 교육을 받아 동네 어른들이 보이실 때면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네며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네에선 '인사 잘 하는 아이'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습관이 현재까지도 이어졌습니다.</p> <p><도우며 사는 세상></p> <p>저의 첫 봉사활동 경험은 지하철역 안내도우미입니다. 사람들을 안내하고 노인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보니 다리는 아팠지만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양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었는데 양로원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음료수 한잔을 건네 주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때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p> <p>이런 주위의 선의의 영향들 덕분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p>
사회 생활 (활동 사항)	<p><분위기 메이커></p> <p>대학시절, 방학 때 워터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땀별에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워터파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저 또한 즐겁게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고객님들을 대하고 동료들을 격려해주시고 고맙게도 동료들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명조끼대여 부서는 일 잘한다는 칭찬과 함께 다른 부서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p> <p>이런 경험을 통해 밝고 활기찬 저의 성격이 주변에도 시너지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사에 밝고 활기 찬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p> <p><공감하는 웹디자이너></p> <p>카페24 프로젝트에서 로고 제작 시 '윌뷰티'라는 뷰티스토어에 걸맞게 색조 화장품의 명암을 표현하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언뜻 보면 특이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배너나 팝업창 제작 시에도 제품과 문구가 돋보이며 깔끔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쉬워야 했고 보편적이지만 식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의 레이아웃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p>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p><끝없는 성장></p> <p>웹디자인 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긴 했지만, 평상시 무언가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디자인 하는 것을 좋아했고 컴퓨터와는 친숙하여서 쉽게 재미를 느꼈으며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p> <p>디자인을 수행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것은 콘텐츠의 컨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콘텐츠의 주제가 잘 반영되고 새롭고 신선하지만 누구와도 공감할 수 있으며, 행복해 질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갈 때에도 간판이나 홍보물의 디자인을 눈여겨보며 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p> <p>5개월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며 최선을 다하여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에 매진할 것이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와 함께 민감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감각적이고 대중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